공매도 금지에 광주·전남 '개미' 주식거래 급증

11월 광주·전남 매수거래대금 3조2089억원…4개월 만에 거래량 증가
美 금리 동결·공매도 금지로 시들했던 2차전지 관련·테마주 다시 인기

광주·전남지역 지난달 주식거래량이 4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의 주식 투자는 지난 8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결정이 '개미'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3년 11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지난달 매수거래대금은 3조2089억원으로 전월(2조1948억)보다 1조141억원(46.20%) 증가했다. 지난달 매도거래대금은 3조 2765억원으로 전월(2조 1484억) 대비 1조1281억원(52.51%) 늘었다.

지역주민들의 주식 거래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1849억원에서 1조6405억원으로 38.45%(4556억원) 늘었고, 매도거래대금은 1조1264억원에서 1조7114억원으로 51.94%(5850억원) 증가했다.

코스닥은 50% 넘게 증가했다. 매수거래대금은 1조98억원에서 1조5683억원으로 55.31%(5585억원)나 늘었고, 매도거래대금 역시 1조219억원에서 1조5650억원으로 53.15%(5413억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광주·전남 투자자가 차지하는 거래비중도 증가했다.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의 매수거래비중은 0.78%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증가했고 매도거래대금 비중 역시 0.80%로 전월에 견줘 0.1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은 에코프로머티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종목과 POSCO 관련주였다.

특히 코스피에서 지난달 17일 상장하며 전국 기준으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는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이었다. 지역민들은 에코프로머티를 불과 2주 사이 1343억원 매수, 1315억원 매도해 거래량 1위에 올려놨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1185억원 매수, 1150억원 매도돼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으로 조사됐다.

지역민들의 주식 투자는 지난 8월 미 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투자 제한 조치와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암울해지면서 함께 줄었었다. 지난 8월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약 25% 감소했고, 9월(코스피 46%, 코스닥 27%)과, 10월(코스피 10%, 코스닥 45%)에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이어 올해 2월(299.17)부터 상승세를 보여왔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달 전월 대비 0.12포인트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게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히 늘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상승했고, 여기에 지난달 5일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와 같은 테마주가 또다시 탄력을 받아 주식거래량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작은도서관 성과나눔 발표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LH 광주전남본부, 작은도서관 성과나눔 발표회

문화강좌·교류행사 등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7일 작은도서관 성과나눔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작은도서관은 단지 내 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바꿔 입주민들이 직접 문화강좌, 교류행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LH는 입주민을 도서관 커뮤니티 매니저로 채용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작은도서관 운영은 지자체 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LH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등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디지털배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협력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활동을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김경진 LH 주거복지사업처장, 정기원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LH 작은도서관 관장 및 커뮤니티 매니저 등 150명이 참석했다.

김경진 주거복지사업처장은 "LH 작은도서관에서 힐링원예, 캘리그라피, 프랑스자수, 키링 만들기, 시낭송 프로그램 등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들이 열린다"며 "앞으로도 LH 작은도서관이 입주민들이 편하게 교류하고 단지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12월 첫째주 광주 '보합' 전남 '하락'…전국 하락세 전환

서울과 경기도, 전남 등 전국 대부분 집값이 가격 조정 국면에 돌입하며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광주는 보합세로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내렸다.

특히 수도권 하락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5월 셋째 주 이후 29주 만에 하락 전환(-0.01%)됐고, 경기도는 26주만에 하락세(-0.01%)로 돌아섰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집값 하락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매물가격 하향 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상으로 연내 반등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07%), 강원(0.03%), 전북(0.01%) 등은 상승, 대전(0.00%), 광주(0.00%), 울산(0.00%)은 보합, 전남(-0.05%), 세종(-0.09%), 부산(-0.07%) 등은 하락했다. 광주는 전주 -0.02%에서 이번 주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주 -0.02%에서 하락폭이 확대된 전남의 경우 순천시(-0.09%) 풍덕·연향동 위주로, 여수시(-0.08%)는 신기·웅천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을 이끌었다.

매수 심리 위축 속에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0.07%)는 20주째 상승했다.

서울(0.14%)의 경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나, 일부 단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 희망가 격차 속에 가격 하향 조정도 목격된다. 이로 인해 상승 폭이 전주(0.16%)보다는 다소 줄었다.

다만 우리지역의 경우 광주는 0.01% 상승했으나 전남은 -0.02%를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노동조합, 북구청에 장학기금 전달

미래 인재 육성에 사용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광주 북구청을 찾아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전달식에는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북구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장학기금은 광주 북구청 교육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쓰일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인재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장학금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된 장학금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무섭게 치솟는 비트코인…5810만원 거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면서 4만5천달러(5917만원)선을 넘보고 있다. 최근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 기준 오후 6시(서부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29% 급등한 4만4189달러(581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일 4만달러(5260만원)를 돌파한 데 이어 4일에는 4만2000달러(5523만원)를 넘나들었고, 이제는 4만5000달러도 넘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4만5000달러에 오른 것은 2022년 4월이 마지막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미 규제당국에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검토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 10여개 중 내년 1월 10일까지 한 개 이상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씨씨데이터(CCDat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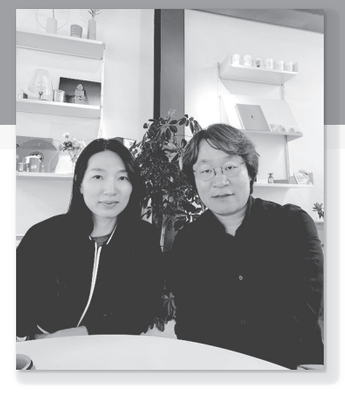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